

<붙임1>

기자간담회('16.1.21)

한국거래소 2016년 주요 사업계획

2016. 1. 21(목)



목 차

I. 최근 자본시장 동향 진단	1
1 2015년 사업성과 평가	1
2 향후 경영환경 분석	2
II. 2016년 중점 사업방향	5
III. 2016년 주요 사업계획	6
1 KRX 거버넌스 선진화	6
2 모험자본시장 육성	7
3 글로벌 경쟁력 확보	9
4 자본시장 활력 제고	12
5 미래 성장동력 확충	14

I. 최근 자본시장 동향 진단

1 2015년 사업성과 평가

① 유망기업 상장 촉진을 통한 IPO 시장 활력 회복

- '15년 총 190社 신규 상장*(코스피 19社, 코스닥 122社, 코넥스 49社), 자금조달 규모 4.5조원을 기록하여 '02년 이후 최대 실적 달성

* 연도별 신규상장 추이 : ('12) 29社 → ('13) 85社 → ('14) 109社 → ('15) 190社

- 진입요건 완화 등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맞춤형 상장유치를 지속 확대한 결과, 신성장·기술기업 중심으로 IPO 활력 회복

②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회복세로 전환

- 글로벌 불확실성, 국내 경제성장 둔화 등 여건 악화 속에서도 우리 주식·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은 회복세로 전환

* 주식거래대금 ('14) 6.0 → ('15) 8.9조/일, 파생거래량 ('14) 2,766 → ('15) 3,185천계약/일

- 시장수요자 니즈에 부응한 제도·인프라 개선*, 다양한 신상품 개발·공급 확대**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유동성 증가

*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, 시장안정화장치 정비, 시간외거래 개선, 배당투자 확대 등

** 미니 코스피 200 선물·옵션, 섹터지수선물, 코스닥 주식선물, ETN 시장 개설 등

③ 미래 성장동력 사업 발굴 및 자본시장 인프라 수출 확대

- 장외파생 CCP 도입('14)에 이어 거래정보저장소(TR) 사업을 유치('15.8)하고, 석유·금시장에 이어 배출권거래시장('15.1)을 새롭게 개설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반 확보

- IT 시스템 해외 수출을 확대해 동남아·중양아 시장 석권

* 지금까지 총 7개국 14개 프로젝트 수주 : 베트남·필리핀·캄보디아·우즈베크 등

① 글로벌 자본시장 : 불확실성 확대 및 신흥국 자금이탈 우려

- 미국 금리인상, 중국 경기둔화, 일본·유로존 추가 양적 완화, 低유가 등으로 세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·변동성 확대 전망

* 미국 양적완화 축소 : '15.12.16 금리 인상(0.25%) 이후 점진적 추가 인상 예상
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(%) : ('11) 9.2 → ('12) 8.1 → ('13) 7.6 → ('14) 7.4 → ('15) 6.9
 국제유가 추이(두바이유, \$/B) : ('14.1月) 104 → ('15.1月) 45.8 → ('16.1.19) 24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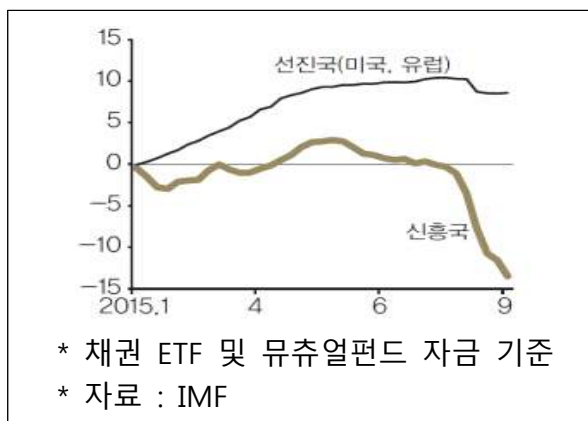
- 미국·일본·유로존 선진국은 완만한 경제 회복 예상. 반면, 중국 성장세 둔화, 브라질·러시아 등 자원국의 불안요소로 신흥국은 경기침체 및 투자자금 유출 등 전반적 부진 예상

*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(IMF, '16.1월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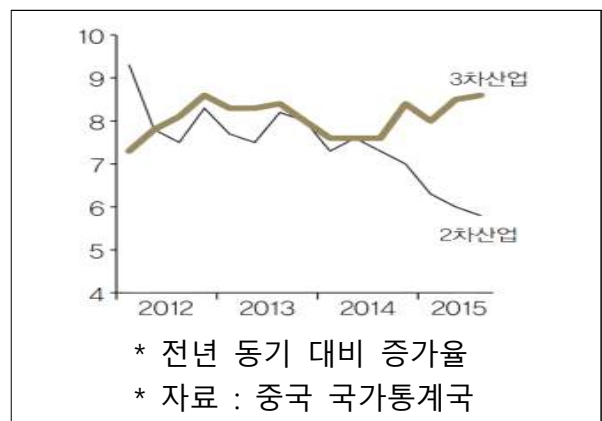
구분	미국	유로존	일본	중국	브라질	러시아	한국
'15년	2.6	1.5	0.6	6.8	△3.0	△3.8	2.7
'16년	2.6	1.7	1.0	6.3	△3.5	△1.0	3.2

* 중국 : 3차 서비스산업 및 내수 중심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제조업 부진 심화
 → 對 중국 수출국가의 연쇄 성장 둔화 등에 따라 글로벌 파급력 증대
 브라질 :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세수 감소에 따라 GDP 比 재정적자 8%로 확대
 러시아 : 低유가에 따른 소비·투자 위축, 루블화 약세, 高금리로 실물경제 위축

< 신흥국 자금 순유입금(조달러) >



< 중국 산업별 생산 증가율(%) >



▶ **시사점** 신흥시장 자금유출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 제도·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유동성 적극 유치 필요

② 국내 자본시장 :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성장 모멘텀 약화

□ 수출 둔화, 내수 부진 등으로 低성장 기조(年 3%내외) 고착 우려

* 경제성장률 전망(한은) : ('15) 2.67%(추계) → ('16) 3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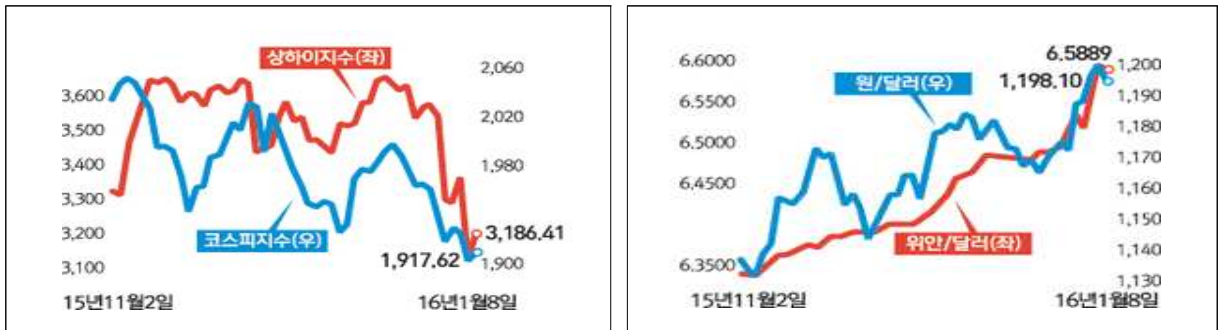
수출 증감률(%) : ('11) 19 → ('12) △1.3 → ('13) 2.1 → ('14) 2.3 → ('15) △7.9

소비자 동향지수(6월) : ('11) 102 → ('12) 100 → ('13) 104 → ('14) 107 → ('15) 99

○ 특히, 對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 동조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중국發 경기침체는 국내경제에 직접적 악영향 예상

* 對 중국 수출 비중('15년) : 26% → 특히, 중간재 수출 비중 : 70%

< 한국 . 중국 주가지수 및 환율 동조화 추이 >



* 최근 3주간('15.12.21~'16.1.8) 주가지수 상관계수는 0.85로 동조화 특히 심화

□ 국내 자본시장은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해외 대비 저평가* 상황이며 스타트업 육성, IPO · 유동성 회복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,

* PER : 한국 10.4배 ↔ 미국 16.6배, 영국 14.8배, 일본 14.6배, 대만 12.5배

PBR : 한국 1.0배 ↔ 미국 2.7배, 영국 1.7배, 일본 1.7배, 대만 1.5배

○ 대내외 불확실성, 경제성장률 저하, 중국 동조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되며, 低성장 경제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자본시장 또한 위축되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

* 기업지배구조 이슈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여전

- 아시아 지배구조 평가 순위('14년 ACGA 평가) : 아시아 11개국 중 한국 8위

▶ **시사점** 고객 친화적 제도 . 인프라 혁신으로 투자 이탈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투자자 유치, 증시 저평가 요인 해소 등에 적극 매진할 필요

③ 거래소 산업 : 글로벌 제휴 . 협력 및 사업 다각화 경쟁

□ 해외거래소들은 지주회사 · IPO 등 거버넌스 개편을 완료*하고, M&A · Joint-Venture · 지분제휴 등을 통한 글로벌 진출 및 다양한 신규분야로 사업구조를 다변화**하며 국제 경쟁력 강화

* 글로벌 Top 15(시가총액) 거래소 대다수 IPO 완료(한국, 중국, 스위스만 비상장)
- 호주 ASX('98) → 싱가포르 SGX('00) → 홍콩 HKEx('00) → 말레이('09) → 日 JPX('13)

** 장외 청산결제 . 매매서비스, IT . 정보사업, 일반상품, Private Market 등 사업 다각화

< 해외 거래소의 주요 M&A . 사업 다각화 현황('10년 이후) 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Private Market 개설('13.1) : 비상장주식 유통시장 ■ Chi-X Canada 인수 추진('15.11) : 캐나다 ATS 시장 진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Turquoise('10.2) 인수 : ATS 시장 진출 ■ LCH.Clearnet 지분 인수('13.5) : CCP 청산 사업 확대 ■ Russell 지수사업 인수('14.12) : FTSE 통합 시너지 창출 ■ Elite Programme 汎 EU 확대('15.4) : 스타트업 성장 지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Venture Network 프로그램 개시('15.6) : 스타트업 지원 ■ 중국 SSE . CFFEX와 합작거래소 CEINEX 개장('15.11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SuperDerivative 인수('14.10) : Multi-Asset CCP 청산 사업 ■ Interactive Data Corp 인수('15.10) : 금융정보서비스 사업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S&P . Dow Jones 지수사업 인수('12.6) : 지수사업 통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SGX 네트워크 연결서비스('15.4) : 네트워크 사업 확대 * SGX 지분 인수('07.6) 이후 상호 교류 . 협력 지속 강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LME 인수('12.12) : 중국시장 겨냥 일반상품 등 사업 확대 ■ 현물시장 연계거래(후강통)('14.11) : 중국 본토 연계거래

□ KRX도 정부의 「거래소 구조개편 방안」 발표('15.7월) 이후에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 및 IPO 적극 추진

○ 또한, ATS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자본시장 경쟁체제 본격화

▶ **시사점** 지주회사 전환 . IPO 등 구조개편을 신속 원활하게 추진하고 해외 M&A .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매진

II. 2016년 중점 사업방향

1 KRX 거버넌스 선진화

▶ 지주회사 전환과 IPO 를 신속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.

- ① 지주회사 전환 ② IPO 추진 ③ 경영 혁신

2 모험자본시장 육성

▶ 스타트업 기업 지원과 모험자본시장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.

- ① 창업지원체계 구축 ② 코넥스시장 활성화
③ 코넥스시장 정보제공 확대 ④ 통합 M&A 중개망 구축

3 글로벌 경쟁력 확보

▶ 해외시장과의 연계와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- ① 글로벌 교차·연계거래 ② 해외 M&A 등 글로벌 진출
③ 자본시장 인프라 수출 확대

▶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.

- ④ 시장 제도·인프라 선진화 ⑤ 시장안정화 장치 도입 확대
⑥ 글로벌 투자자 유치 마케팅

4 자본시장 활력 제고

▶ 상장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IPO 붐을 이어가겠습니다.

- ① 국내외 우량기업 상장유치 ② 신성장·기술기업 상장유치
③ 상장기업 서비스 확대

▶ 다양한 투자 니즈에 맞춰 상품 라인업을 확충하겠습니다.

- ④ 파생상품 라인업 확대 ⑤ ETF·ETN 신상품 확충
⑥ 채권시장 유동성 증대

▶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장운영으로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.

- ⑦ 불공정거래 예방·근절 ⑧ IT 시스템 운영 효율화

5 미래 성장동력 확충

▶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겠습니다.

- ① TR 설립 ② 장외 CCP 청산 확대
③ TR·CCP 연계 신사업 모색 ④ 정보사업자 기반 구축
⑤ 일반상품·배출권시장 활성화 ⑥ 사업 다각화 추진

Ⅲ. 2016년 주요 사업계획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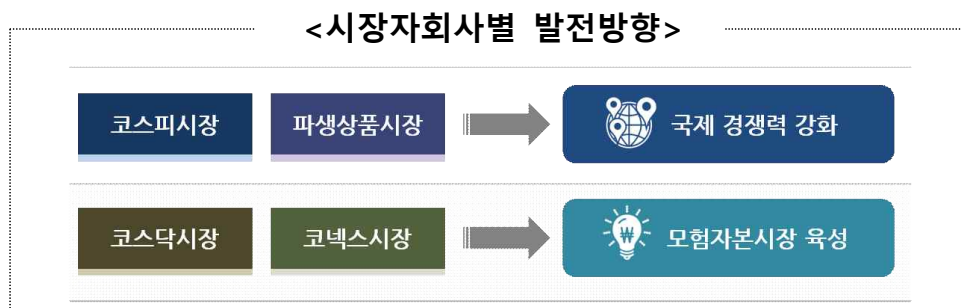
KRX 거버넌스 선진화

◆ **지주회사 전환과 IPO 를 신속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.**

① (지주회사 전환)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여 시장間 경쟁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추진

○ (기본방향) 시장자회사(거래소)間 경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신상품 개발, 거래제도 차별화, 상장유치 경쟁 등 시장혁신 가속화

* 코스피, 파생상품시장은 글로벌 선진시장 도약을 위한 “국제 경쟁력 강화”를, 코스닥, 코넥스시장은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 “모험자본시장 육성” 중점 추진



○ (거버넌스 체계)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구조를 구축하되, 공통기능 통합운영 및 지주-자회사간 임원 겸직 등을 통해 비용 효율성 도모

○ (추진일정) 19대 국회 내 국회통과를 전제로 분할계획 마련, 정관 정비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, 이사회·주총 결의 및 정부 승인을 거쳐 금년 하반기까지 지주회사 전환 절차 완료

* 법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법 개정 이후 최대한 신속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하여 관련 실무절차를 착실히 준비할 예정

② (IPO 추진) 지주회사 전환 이후 '17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IPO 선결과제 이행 등 실무 준비 진행

- (IPO 선결과제 이행)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예탁결제원 지분 매각, 상장차익 환원, 공익기금 조성 등 IPO 선결과제 이행
- (IPO 방안 마련) 정부, 주주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모규모, 모집/매출비율 등 IPO 추진 실무방안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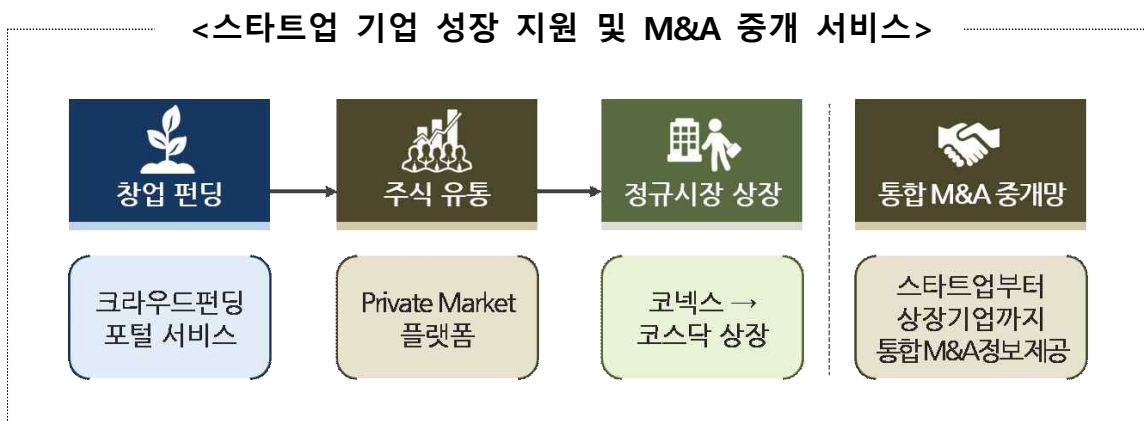
③ (경영 혁신) 구조개편을 계기로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여 역동적인 비즈니스 조직으로 혁신

- 자회사별 명확한 성과평가 및 독립채산제를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축

* 조직 . 인사, 평가 . 보상, 재무 . 예산 등 경영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정비

2 모험자본시장 육성

◆ 스타트업 기업 지원과 모험자본시장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.



① (창업지원체계 구축) 스타트업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클라우드펀딩 → Private Market → 코넥스 → 코스닥 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상장사다리 체계 구축

- (클라우드펀딩 지원) 「클라우드펀딩 포털서비스」를 제공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
- (장외주식 유통시장 구축) 클라우드펀딩 기업 등의 장외 주식 유통을 위하여 「Private Market 플랫폼」도 동시에 마련
 - * (해외사례) 美 Nasdaq : 비상장주식 유통시장인 Private Market 개설('13.1月)
 - 英 LSE : Elite Programme 으로 汎 EU 스타트업 기업 지원('15.4月)
 - 獨 DB : Venture Network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기업 지원('15.6月)

② (코넥스시장 활성화) 창업초기기업 등 코넥스 상장 확대 및 투자수요 확충 등을 통해 혁신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

- (상장요건 완화) 지정기관투자자 기준 및 투자요건 완화 등 특례상장 요건 완화를 통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 문호 확대
- (상장유치를 위한 협력 강화) 창조경제혁신센터, 기업관련 단체 등과 연계해 창업초기기업 등 상장유치 확대
 - 코넥스 → 코스닥 이전상장(14개사)을 더욱 활성화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성장사다리로서 코넥스시장의 기능 강화
- (투자수요 확충) 공공·민간펀드의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투자 수요를 확충하고, 코넥스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제도를 개선
 - * 대량매매제도, LP, 호가단위 등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자 거래편의 제고

③ (코넥스시장 정보제공 확대) 코넥스시장 및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고, 코넥스시장 홍보 강화 및 투자자 저변 확대

- (코넥스시장 홍보 강화) 월간 「KONEX Market Brief」를 발간하여 코넥스시장 정보 제공 확대
- (기업분석정보 제공 확대) 코넥스 상장기업 대상 KRP(KONEX Research Project)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투자자 편의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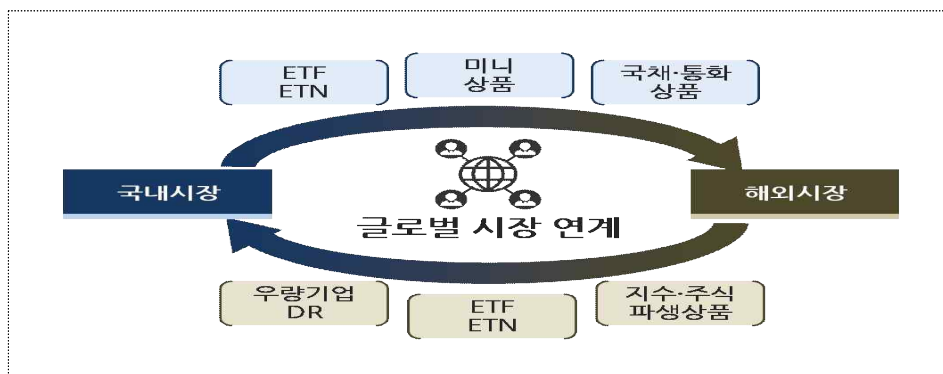
④ (통합 M&A 중개망 구축) 클라우드펀딩 기업 등 스타트업 기업 부터 상장기업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업정보가 집적된 「통합 M&A 중개망」 구축

- M&A 기업정보를 거래소를 통해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, M&A 탐색비용 절감 및 M&A 성사율 제고

3 글로벌 경쟁력 확보

◆ 해외시장과의 연계 및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① (글로벌 교차·연계거래) 해외시장과의 교차·연계거래를 확대 하여 국내시장에서 국내외 주요상품을 원스톱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종합 거래플랫폼 구축



- (국내 대표상품 해외진출) 코스피200 선물·옵션, ETF 등 국내 대표상품의 해외 거래소 상장을 통한 해외진출 추진

[증권시장] 아시아 주요 거래소와 ETF·ETN의 교차·공동 상장

[파생시장] 미니상품, 국채·통화상품 등 해외 연계거래 확대*

* 現 코스피 200 선물·옵션(CME·Eurex 연계) 에서 대상상품 및 연계거래소 확대

- (국내시장 거래상품 국제화) 국내 투자자의 투자수요가 큰 해외 주요상품들의 국내 상장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편의 제고 및 유동성 해외유출 방지

[**증권시장**] 아시아 Top class 기업, 중국 우량기업 DR 등 유치, 해외 ETF·ETN 상품 라인업 확대*

* 주요국 대표·섹터지수, 신흥국 대표지수, 해외채권, Euro·엔·위안화 상품 등

[**파생시장**] 해외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, 글로벌 초우량기업 주식선물(例. 애플·구글 등) 도입

② (**해외 M&A 등 글로벌 진출**) M&A·Joint-Venture·지분제휴 등 다양한 해외진출 전략을 검토하여 중장기 액션플랜 수립·추진

- 지주회사·IPO 등과 연계해 단계별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* 하고, M&A 가능 후보군 및 타겟기업 선정 등 실무준비 착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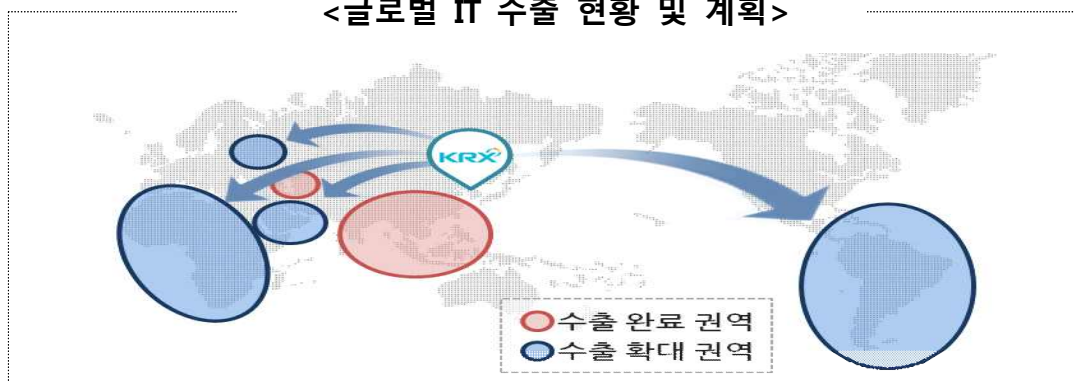
* 학계·업계·유관기관·국내외 컨설팅社 등과 공동 연구·협업 병행

** 해외 거래소의 M&A·지분제휴 등 딜 사이즈를 고려할 때 IPO 이후 본격 추진 가능
→ IPO 이전에는 M&A 자금력이 부족하고 지분가치 低평가로 지분제휴 곤란

③ (**자본시장 인프라 수출 확대**) 동남아 지역에 편중된 수출 대상국을 중동·동유럽 등으로 확대하고, 수출용 IT 시스템 패키지 완비 등 품질 경쟁력 지속 제고

* 지금까지 총 7개국 14개 프로젝트 수주 : 베트남·필리핀·캄보디아·우즈벡 등
→ 現 추진 중인 프로젝트 : 아제르(3月), 우즈벡(10月), 베트남('17년) 완료 예정
→ 향후 입찰 참여 예정 : 필리핀(청산결제), 브루나이(증시설립), 아부다비(청산소) 등

<글로벌 IT 수출 현황 및 계획>



◆ **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.**

④ **(시장 제도·인프라 선진화)** 글로벌 투자자의 거래 제약 해소 및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장제도·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

○ **[증권시장]** 매매거래시간 연장(예. 30분 연장), 시간외 접속매매 도입, 대량매매제도 개선, 호가단위 세분화 등 투자자 거래 기회 확대를 위한 고객친화적 제도 개선

–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Comply or Explain 제도 도입 및 지배구조 공시 확대

○ **[파생시장]** 음니버스계좌 도입*, 이종통화(달러) 결제체계 단계적 구축(파생 → 증권) 등을 통한 글로벌 투자환경 조성

* 외국인 투자자(子계좌)가 외국 중개업자의 단일계좌(母계좌)를 통해 통합 주문

– 외국인의 국내 시장 참여시 자국 감독기관 규제 이슈 해소

* 美 CFTC의 FCM 등록면제, 대만 등 규제기관의 No-Action Letter 취득 등

⑤ **(시장안정화 장치 도입 확대)** 증권시장에도 알고리즘거래가 확대*됨에 따라 착오주문에 의한 시장안정성 저하 방지

* 증권시장기준 알고리즘거래 비중 : 호가건수 비중 36%, 거래량 비중 9%

○ '14년 파생상품시장에 이어 증권시장에도 킬스위치(Kill-Switch) 및 착오매매 구제제도 확대 도입

* 킬스위치 : 착오주문 발생시 착오주문 발생 계좌내 미체결 주문을 일괄 취소하는 제도

** 착오매매 구제제도 : 대량투자자의 착오매매 발생시 거래소 직권으로 이를 구제하는 제도

⑥ **(글로벌 투자자 유치 마케팅)** 대외환경 변화에도 투자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시장불안정이 최소화되도록 장기·안정적인 글로벌 유동성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 확대

- 정부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
 - * MSCI 워킹그룹 참여, 제도 개선 정부 건의 및 해외 IR 등 홍보 활동 전개
- 증시개설 60주년, 코스닥·파생상품시장 20주년 등과 연계해 해외 로드쇼·컨퍼런스 등 대대적인 한국시장 홍보 추진
- 해외 기관투자자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지 1:1 세일즈 미팅 등 고객 밀착 마케팅 전개
 - * 필요시 現 중국·싱가폴 사무소 외에도 주요 금융지역으로 해외거점 확대 추진
→ 해외 현지 세일즈·마케팅 경험이 풍부한 외국인 전문가 등 영입도 병행

4 자본시장 활력 제고

◆ 상장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IPO 붐을 이어가겠습니다.

- ① (국내외 우량기업 상장유치) 상장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* 하고 기업 특성별 맞춤형 상장유치 마케팅**을 지속적으로 전개
 - * 진입요건 개선, 보호예수 대상 합리적 조정, 회계 적용기준 완화 등
 - ** IB·PEF 등 공동 마케팅·설명회 개최, 기업별 상장 컨설팅·교육 서비스 제공 등
- ② (신성장·기술기업 상장유치)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 코스닥 특성을 반영한 상장제도 차별화*를 통해 핀테크 등 최신 산업 트렌드의 신성장기업, 업종선도기업 등 우량 기술기업의 상장유치 확대
 - * 기술평가 제도·인프라 재정비, 적자기업 상장대상 확대 등 상장제도 개선
- ③ (상장기업 서비스 확대) 공시 등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*하고 기업 맞춤형 IR 지원 및 공시교육 서비스 확대**
 - * 포괄주의 공시 안정화, 원스톱 공시지원 시스템 구축, 모바일 공시 앱 재구축 등 공시 제도·인프라 개선,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개선 추진
 - ** 기업 규모·업종·테마별 IR 개최 및 기업별 맞춤형 IR·공시교육 서비스 제공

◆ 다양한 투자 니즈에 맞춰 상품 라인업을 확충하겠습니다.

④ (파생상품 라인업 확대) 주가지수·개별주식 등 파생상품 인기 상품군을 강화하고, 차세대 주력상품인 원자재 상품 등 혁신적인 신상품 도입 확대

- [지수·주식 상품군] 섹터지수선물·개별주식선물 라인업 확대, 코스닥 150 옵션, KTOP 30 상품 등 도입
- [원자재 상품군] 오만油 선물 도입(DME·KRX間 연계거래 구축)
- [신규 상품군] 해외 ETF 선물·옵션*, 변동성지수 옵션 등 도입

* 국내 상장된 해외 ETF(例. CSI 300 ETF 등)를 기초자산으로 선물·옵션 상장

<파생상품 라인업 확대>

상품군	지수·주식	원자재	신규
세부 내용	섹터지수선물·개별주식선물, 코스닥150옵션, KTOP30 상품	오만油 선물	해외 ETF 선물·옵션, 변동성지수 옵션

⑤ (ETF·ETN 신상품 확충) 다양한 간접투자상품 수요를 충족시키는 파생형(±2배), 전략·테마형 등 ETF·ETN 상품 라인업 확대

* 코스피 200 인버스레버리지 ETF, 손실제한형 ETN, 변동성지수선물 ETN 등

⑥ (채권시장 유동성 증대) 국채·일반채권 협의매매, REPO 실시간 결제 및 상대매매 도입, 단기지표금리 산출·공표 등을 통하여 채권 제도·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내외 상장·투자 마케팅 확대

◆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장운영으로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.

- 7] (불공정거래 예방·근절) 시장감시 제도·인프라 정비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차단하고, 테마주·관행적인 탈법행위 등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
- 최첨단 감시기법·IT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
* '16년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 착수 → '17년 본 개발 추진 → '18년 가동 목표
 -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장감시체계 정비
 - 증권카페·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대한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,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확대 등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체계 확립
 - 테마주 등 이상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박리다매식 시세조종(초단기간 다수종목 관여) 집중 감시 등을 통해 주가조작 조기 차단
 - 중대·긴급사건 적시 대응 및 정부 조사단 등과 공조체계 강화
 - 자사주 취득·블록딜 등 이용한 관행적 탈법행위 정기 점검 대응
- 8] (IT 시스템 운영 효율화) IT 시스템 장애·오류, 사이버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IT 운영 안정성을 수시 점검·관리하고, 효율적인 IT 시스템 개발·운영을 통하여 IT 비용 절감 추진

5 미래 성장동력 확충

◆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겠습니다.

- 1] (TR 설립)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(TR) 설립*을 추진하여 법제·규정 제정 및 시스템 구축 → '17년 TR 서비스 개시
- * '15.8월 금융위 「TR(Trade Repository) 사업자 선정 위원회」에서 KRX 선정

② (장외 CCP 청산 확대) 달러차액결제선물(NDF) 청산 도입* 등을 통하여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장외 CCP 청산사업 지속 확대

* '14년 원화 이자율스왑(IRS)에 대한 청산서비스 최초 도입

③ (TR·CCP 연계 신사업 모색) TR·CCP에서 확장되는 신사업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확인(Confirmation) 서비스, 포트폴리오 축약(Compression) 서비스, 장외전자거래플랫폼(SEF) 등 사업 모색

* 매매(SEF) - 청산(CCP) - 정보저장(TR) 등 순 과정의 장외 토탈 서비스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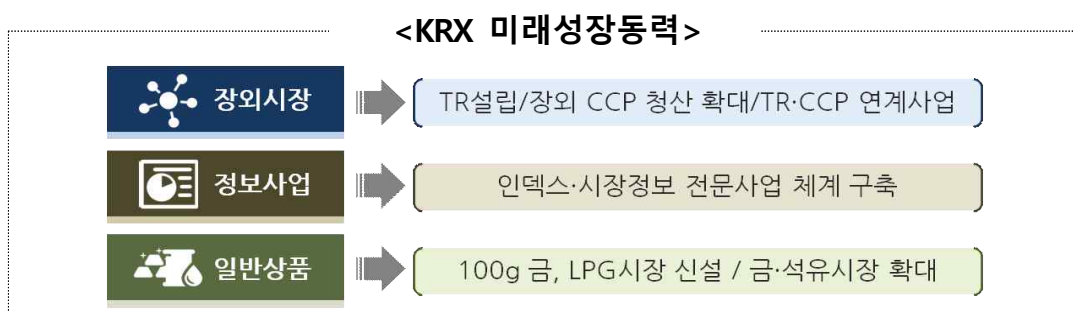
④ (정보사업자 기반 구축) 인덱스 라인업을 확충하고 해외 파트너십·마케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新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등 인덱스·시장정보 전문사업 기반 구축

* (해외사례) 美 CME : S&P 및 Dow Jones 지수사업 인수 합병('12.6月)

英 LSE : 기존 FTSE 지수사업 + Russell 지수사업 인수 합병('14.12月)

⑤ (일반상품·배출권시장 활성화) 100g 금, LPG 시장 등을 개설하고 금·석유시장 제도 개선 및 마케팅을 통해 시장 활성화 도모

○ 배출권시장은 외부사업 감축량(KOC) 도입 및 해외 연계거래 추진



⑥ (사업 다각화 추진) 지주회사·IPO 등과 연계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 모색을 위한 중장기 사업구조 다각화 전략 수립

○ 미래 유망한 신사업 아이템 발굴 및 단계별 액션플랜 수립

* 해외 M&A, Joint-Venture, 지분제휴 등 글로벌 진출 전략과 병행 수립